

## 전래동화와 대학생의 편견 형성 판단

— 백설공주,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

### The Traditional Fairy Tales and the Judgement of Prejudice Formation : Snow White, Kongjui Patjui, and Changwha Honglyunjeon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 公 仁 淑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u Sook, Kong*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교 수 : 柳 岸 津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An Jin, Yoo*

아동기에 읽은 동화는 일생에 걸쳐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아동이 즐겨 보는 전래동화에서 대부분의 계부모-자녀관계가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이혼의 증가로 인한 재혼가족의 증가 추세에서 사악한 계모의 상을 제시한 전래동화가 계부모-계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남녀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아동기에 읽은 계모-계자녀 관계를 다룬 3편의 전래동화가 그들에게 어떤 편견을 형성하였다고 판단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chi^2$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은 아동기에 백설공주라는 외국의 전래동화를 콩쥐팥쥐나 장화홍련전과 같은 한국 전래동화보다 더 많이 읽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그러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3/4은 전래동화가 편견을 형성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대학생은 백설공주,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에서 계모-계자녀간의 적응을 방해하는 부정적 계모상을 연상하였다.

넷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 주인공과 계모에 대한 편견과 인지에 더욱 민감하였다.

다섯째, 이들 동화가 편견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절반 정도의 대학생은 이들 동화를 친지 아동에게 권하거나 선물하려고 한다.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아동은 책을 읽거나 듣는 동안에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이 상징하는 바를 음미하거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 즉 아동은 동화를 통하여 삶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Bettelheim, 1977), 성숙의 과정을 예시받을 수 있다(Strehlow, 1985; 김경중, 1990에서 재인용). 또한 동화는 아동에게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주면서 자아와 경험을 확산시키며 자기표현능력이나 언어능력, 탐미적 감상력을 길러 주는 등의 교육적 기능을 한다. 그래서 아동기에 읽은 동화는 일생에 걸쳐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강인연·김영숙, 1992: 139).

그런데 일부 전래동화에는 도덕적 불합리성이나 잔인성, 欺罔, 虛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래동화 교육상 문제가 되고 있다(최운식·김기창, 1988: 62-64). 또한 전래동화가 반영하는 가치가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면이 지적되어 그에 따른 전래동화의 재해석과 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서울대학교 아동학연구실원, 1993; Fetscher, 1991).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래동화에서 대부분의 계부모-자녀관계가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즉 아동이 흔히 접하는 콩쥐팍쥐, 장화홍련전 등의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백조 왕자 등의 외국 전래동화가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전래동화가 민담이나 설화에 기초하여 쓰여져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기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 의하면 서구에서 아동에 대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이며, 당시의 아동의 지위나 자녀 양육 상황은 현재와 비교해 보면 매우 열악하였다(DeMause, 1974: 51-55).

또한 임산부의 사망이 많았던 전산업화 사회에서는 인구의 반 정도는 계부모 경험을 가졌었다. 따라서 동화에 나타난 사악한 계모에 관한 내용은

당시의 계부모에 대한 일반적 반감을 표현(Laslett, 1965: 95; MacFarlane, 1970: 126에서 재인용)했다고 한다. 즉 당시의 계모에 대한 동화는 아동에게 나름대로의 정서적 배출구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망율의 감소와 자녀 출산율의 저하, 아동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의하여 아동의 지위가 과거에 비하여 상승된 반면, 한편으로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편부모가족, 재혼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과 재혼가족의 형성에 따른 계부모와 계자녀간의 적응문제가 현대의 중요한 가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흔히 부모의 이혼 시에 아동은 분노, 분개, 불안, 우울, 죄책감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부모의 재혼 시에 아동은 친부모의 화해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새로운 계부모의 통제나 훈육 노력에 대해 분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새로운 계부모와 친부모의 결혼관계를 과거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한다(Hetherington, Stanley-Hagan & Anderson, 1989). 즉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은 아동에게 어려운 적응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혼의 증가로 인한 재혼가족의 증가 추세에서 과거와 같은 사악한 계모의 상을 제시한 동화는 계부모-계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할 가능성이 높다(Burr, Day & Bahr, 1993: 473).

그런데 전래동화에서 계모에 대한 해석은 이야기 자체가 아동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학자들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더 치중했다고 볼 수 있다(송영규, 1992: 143-144). 또한 계모에 대한 해석은 성별, 연령별, 상황별로 각기 차이가 있을 것이다(Simonson, 1981; 송영규, 1992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직도 아동에게 지속적 이고도 널리 읽히는 외국과 국내의 전래동화 중에서 계모-계자녀관계에 관한 동화로 백설공주, 콩쥐팍쥐, 장화홍련전을 선정하여, 비교적 판단 능력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아동기에 읽은 동화가 그들에게 어떤 편견을 형성했다고 판단하는 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에 기초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은 3편의 동화를 얼마나 읽었으며, 독서 정도는 性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은 3편의 동화에서 무엇을 聯想하며, 연상하는 內容은 性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1〉 대학생은 3편의 동화가 그들에게 偏見 형성을 조장했다고 평가하는가?

〈연구문제 3-2〉 3편의 동화는 이를 읽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편견을 형성하였으며, 이런 편견 형성 如何는 대학생의 性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3편의 동화를 읽은 대학생은 이들 3편의 동화를 아동에게 권할 만한 책으로 평가하는지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II. 이론적 고찰

### 1. 전래동화의 개념

#### 1) 동화의 개념

동화의 개념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사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개념과 아동문학 연구자의 개념규정이 모호하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자의 개념 정의와 후자의 개념 정의간에는 그런대로 차이가 나타나 있는데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적인 개념은 일반적 보편적인 개념 정의로서 보다 광의의 개념적 특징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국어대사전(한국어사전편찬회, 1991 : 794)에서는 동화는 아동문학의 한 부분으로 어린 이를 상대로 동심을 기초로 하여 지은 이야기로 공상적, 서정적, 교훈적인 것이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예대사전(1962 : 306-307)에 의하면 동화(Märchen)란 원래 “소규모의 설화”란 뜻으로 좁은 의미의 동화(Kindermärchen)에만 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중 사이에서 행해지는 소설 및 우화까지

포함하는 산문으로 된 서사문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문예대사전의 정의가 국어대사전의 정의보다는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적 보편적인 일반인의 개념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문학가의 동화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이보다 더 협의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아동문학가 이재철(1969 : 215-216)은 동화란 옛이야기나 민화중에서 안데르센과 그림을 고향으로 하는 상징적 문학 형식으로, 소박하게 요약된 미적 표현 가운데서 인간 일반의 보편적 진실을 증시하는 시에 가까운 산문문학이라고 동화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역시 이홍식(1981)도 동화의 근원은 원시 시대의 설화 문학이며 그중에도 전래동화는 원시 민족이 신의 행적을 읊은 서사시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동화는 원시적인 신화, 지방 전설, 설화, 설명담, 동물담, 민담, 우화, 소화 등을 집대성하여 아동심리와 아동의 교육성에 의거하여 분화한 문학 양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철(1983 : 142)은 이홍식의 정의를 보다 간추려서 동화는 옛날이야기, 민담, 우화, 신화, 전설 등과 같은 설화의 종류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재구성, 개작하거나 또는 그러한 특징을 동화라는 형태 속에 포용한 것이라고 했다. 즉 동화는 화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 문학의 장르로 詩 정신에 입각한 인간 보편의 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크게 두가지 견해로 동화의 개념을 고찰한바, 사전적인 정의이든 아동문학가의 정의이든 간에 읽는 대상을 “아동”으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문예대사전과 아동문학가의 정의가 민화나 설화 같은 산문에 기초하는 견해라는 점도 공통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이재철과 이홍식의 개념 정의가 일치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홍식의 아동교육성을 포함한 개념 규정과 이재철의 인간 보편의 진실을 포함한 개념 규정이라는 점이다. 표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교육성과 인간 보편적 진실에서 동화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심리와 아동교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나 그런 류의 산문 형식의 한

장르라는 개념에 합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전래동화의 개념

전래동화는 흔히 옛날이야기로 불리우는데,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옛날이야기 중에서도 동심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야기가 전래동화인 것(최운식 외, 1988 : 18)이다. 즉 전래동화는 민간설화의 한 부분이며, 아동에게 들려주어서는 안될 어른의 이야기는 그대로 民譚으로 남게 된 것이다(송영규, 1992 : 54).

전래동화는 주로 구전되어 왔으나, 일부는 일찌기 옛 문헌<sup>1)</sup>에 정착되었고, 일부는 최근에 채록되어 각종 동화집이나 설화집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래동화에는 문헌에 정착된 정착동화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동화가 있다(최운식 외, 1988 : 19).

## 2. 전래동화의 특징과 편견 형성

아동은 책을 읽거나 듣는 동안에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이 상징하는 바를 음미하거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 이때 어린 아동은 도덕 판단의 단계에서 타율적인 단계에 있으므로, 동화에서 전달하는 내용에 대하여 단순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화의 내용이 아동에게 편견이나 선입관념을 조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전래동화에는 도덕적 불합리성이나 잔인성, 欺罔, 虛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래동화 교육상 문제가 되고 있다(최운식 외, 1988 : 62-64).

그럼에도 아동도서관의 자료(정선해, 1980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저학년 아동은 편견을 주입 또는 형성시켜 줄 우려가 있는 한국 전래동화나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등의 외국 전래동화를 즐겨 읽고 있었다. 또한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도시 어린이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의 아동이 전래동화를 창작동화보다 선호하고 있었다(이동태, 1980). 즉 아동은 창작동화보다는 전래동화를 많이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래동화의 내용 전개 과정을 분석해 보면, 우선 동화의 전반적 내용의 전개는 초시간적, 초공간적 환상성에 의하여 지배된다. 둘째, 동화의 등장 인물은 좋은 주인공과 나쁜 주인공의 성향을 가진 양극단의 주인공이 반드시 등장한다. 셋째, 사건의 전개는 나쁜 주인공에 의하여 좋은 주인공이 극도의 고난과 위기를 겪게 되고, 위기의 절정에서 극적 전환을 통하여 아동의 상상 속에서 갈망하는 바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동화의 구조는 제시부, 중간부, 종결부로 극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제시부는 극의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이며 전체적인 내용은 갈등과 좌절을 일으키는 단계와 좋은 주인공의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갈등해소의 단계로 양분된다(김경중, 1990).

이때 아동이 즐겨보는 전래동화 중에는 좋은 주인공으로는 사망한 전처 소생 자녀가 등장하고 나쁜 주인공으로는 계모나 이복형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동화의 등장 인물은 전부 전형적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美醜, 大小強弱, 善惡, 順從과 不順從, 勤勉과 怠慢과 같은 相反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묘사된다(김영희, 1977). 즉 전형적인 계모-전처 소생 자녀에 관한 동화는 악한 계모가 순종적인 전처 소생 자녀를 구박하거나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같은 동화는 계모가 계자녀의 생명을 빼으려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강화한다(Burr 외, 1993 : 473). 따라서 이런 사악한 계모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계부모는 문화적 선입견이나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Ehrlich, 1973 ; Burr 외, 1993 : 472에서 재인용), 계자녀와의 적용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동화에 나타난 어머니-자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계모는 뚜렷하게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임으로 아동에게 계모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한다(강여주, 1990).

또한 아동이 즐겨보는 콩쥐팥쥐, 백설공주 등의 전래동화를 분석한 결과 약한 자는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강한 자만이 분노나 공격성을 표현하고 있다(서봉연, 1980). 또한 주인공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체념이나 낙심에서 멈추는 소극

1)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에서 전래동화의 원형이 기록된 것을 찾을 수 있으며, 서양에서는 19세기 초에 Grimm형제에 의하여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졌다.

적인 면을 보이며(최운식 외, 1988 : 237), 외적인 원조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전래동화중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는 아동에게 계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소극적인 순종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보다는 외적 원조에 의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게 하여, 비교육적 편견을 주입하거나 형성,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 대상

대학생은 발달상으로 비교적 정확하고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인 동시에 친지 아동에게 동화를 전하거나 선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시내 소재 3개 대학을 유의표집하여 대학 재학중인 2, 3, 4학년 남녀 대학생 280명을 연구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부실기재된 9부를 제외한 271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이 135명(49.8%), 여학생이 136명(50.2%)으로 거의 동수였다. 연령은 17~19세가 97명(35.8%), 20세가 79명(29.2%), 21세가 53명(19.6%)이었으며, 22~27세인 경우도 42명(15.5%)이었다.

주 성장 지역은 대도시인 경우가 204명(75.8%)으로 대다수였으며 중소도시가 43명(16.0%), 농어촌인 경우는 22명(8.2%)이었다.

#### 2. 3편의 동화 선정

편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의 형성에서 계부모와 계자녀간의 적응문제가 현대의 중요한 가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모와 계자녀간의 순탄한 적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편견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전래동화를 선정하였다.

또한 교보문고, 동화서적, 종로서적, 영풍문고에서 지난 10년 이래 꾸준히 팔리는 동화로서 단행본 및 전집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외국 동화 1편과 비슷한 내용의 한국 전래동화 2편을 고른 결과

백설공주,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이 선정되었다.

#### 3. 조사도구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이 충분한 지필능력과 인지능력을 지닌 대학생이라는 점과,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편의 동화 독서 여부, 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과 동화의 제목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직접 기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3편의 동화를 친지 아동에게 선물할 책으로 구입하려는 지와 구입하려는 이유, 편견 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형성된다고 보는 편견 내용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묻는 문항이 부가되었다. 이때 각 문항은 아동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이상 3명이 안면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본조사는 1993년 3월 5일부터 12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 절차는 조사대상인 대학생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동화 독서 여부 및 인지여부, 연상되는 단어의 종류, 동화 구입 여부와 이유, 편견 형성 여부와 편견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하여, 백분율, 빈도 분포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연상하는 단어, 편견의 종류,

표 1. 대학생의 동화 독서와 인지 정도

동화명	구 분	빈도(%)
백설공주	읽었다	253(93.4)
	읽지는 않았으나 내용을 알고 있다	18( 6.6)
	모른다	0( 0.0)
콩쥐팥쥐	읽었다	247(91.1)
	읽지는 않았으나 내용을 알고 있다	22( 8.1)
	모른다	2( 0.7)
장화홍련전	읽었다	222(81.9)
	읽지는 않았으나 내용을 알고 있다	29(10.7)
	모른다	20( 7.4)

표 2. 성별에 따른 동화 독서 정도

동화명	독서 여부	성 별		계	χ <sup>2</sup>
		남	여		
백설공주	읽었다	117(86.7)	136(100.0)	253(93.4)	19.4****
	읽지 않았다	18(13.3)	0( 0.0)	18( 6.6)	
	계	135	136	271	
콩쥐팥쥐	읽었다	115(85.2)	132( 97.1)	247(91.1)	11.8***
	읽지 않았다	20(14.8)	4( 2.9)	24( 8.9)	
	계	135	136	271	
장화홍련전	읽었다	98(72.6)	124( 91.2)	222(81.9)	15.8****
	읽지 않았다	37(27.4)	12( 8.8)	49(18.1)	
	계	135	136	271	

\*\*\*p<.001

\*\*\*\*p<.000

동화 독서 정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χ<sup>2</sup>검증을 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동화 독서와 동화 내용 인지 정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3편의 동화에 대한 독서 여부와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동화인 백설공주는 모든 조사대상자가 읽었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전래동화인 콩쥐팥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이 읽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장화홍련전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7.4% 정도나 되었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은 그들의 아동기에 외국동화를 더 읽고 더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래동화집이 주로 1980년대에 많이 발간되었는데, 이때 외국전래동화집이 한국전래동화집보다 더 많이 발행되었던 것(최운석 외, 1988 : 263-264)을 반영하는 것 일 수 있다.

대학생이 성별에 따라서 동화 독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계모-자녀관계를 다룬 3편의 동화 모두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장기에 동화를 많이 읽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상의 3편의 동화가 주로 여아가 주인공이어서 특히 여학생이 이들 동화를 선호하여 읽었을 가능성도 있다.

##### 2. 동화에서 연상하는 단어

대학생들은 3편의 동화 제목을 보고 다음과 같은 것을 제일 먼저 연상하였다. 우선 백설공주에서 일곱난장이를 연상하는 경우가 116명(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흔히 동화 제목이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화의 제목에서 영향을 받은 듯 하다. 다음으로는 공주를 연상하는 경우가 44명(16.8%), 독 있는 사과를 연상하는 경우가 43명(16.4%), 계모를 연상하는 경우가 29명(11.1%), 거울 14명(5.3%), 왕자 13명(5.0%)의 순이었다<sup>2)</sup>.

동화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전래동화에서 나타나 는 선입관념과 관련시켜 보면, 크게 주인공의 덕성이나 아름다움에 관한 것, 외적인 원조, 계모나 이복형제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대학생이 백설공주에서 연상하는 단어에 적용해 보면, 49.3%의 대학생이 난장이나 왕자와 같은 外的 援助를 연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계모나 계모와 관련된 연상(독이 든 사과, 거울)으로 32.8%의 대학생은 백설공주에서 계모와 관련된 연상을 맨 처음에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16.8

2) 응답에 대한 내용분석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2인의 내용분석이 일치하는 경우만을 제시하였으며, 5%미만의 응답 내용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제외하였다.

표 3. 성별에 따른 동화에서 연상하는 단어

동화명	연상 단어	성 별		계 (%)	$\chi^2$
		남	여		
백설공주	계모	30(22.9)	56(43.8)	86(33.2)	12.8**
	외적원조	75(57.3)	54(42.2)	129(49.8)	
	주인공	26(19.8)	18(14.1)	44(17.0)	
	계	131	128	259	
콩쥐팥쥐	계모	80(66.7)	66(53.7)	146(60.1)	6.6*
	외적원조	22(18.3)	40(32.5)	62(25.5)	
	주인공	18(15.0)	17(13.8)	35(14.4)	
	계	120	123	243	
장화홍련전	계모	47(45.6)	63(55.7)	110(50.9)	3.5
	외적원조	4( 3.9)	7( 6.3)	11( 5.1)	
	주인공	52(50.5)	43(38.0)	95(44.4)	
	계	103	113	216	

\*\*p<.005

\*p<.05

%의 대학생은 백설공주와 관련된 연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 가족간의 적응 문제에서 아동기 동화로부터 형성된 편견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백설공주에서 연상하는 단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계모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학생은 외적 원조나 공주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학생은 계모와 외적 원조를 비슷한 정도로 연상하고 있는데, 남학생은 외적 원조를 가장 많이 연상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이 동화에서 同性의 人物에 대한 聯想을 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계모-계자녀를 다룬 전래 동화에서 여성의 모습이 사악한 가해자이거나 순종적인 피해자임에 비추어 볼 때 동화가 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콩쥐팥쥐에서는 계모를 연상하는 경우가 98명(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콩쥐를 도와주는 동물(두꺼비, 소, 참새)이나 선녀를 연상하는 경우가 43명(16.8%), 콩쥐를 연상하는 경우가 35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구박(돌발, 밀빠진 독)을 연상하는 경우가 28명(10.9%), 팥쥐나 꽃신을 연상하는 경우가 각각 19명(7.4%)이었다. 즉 계모와 구박, 팥쥐 등의 계모와 관련되어 부정적 이미지 연상을 하는 경우가 56.7%로 가장 많았고 외적

원조에 대한 연상이 24.2%, 주인공을 연상하는 경우가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콩쥐팥쥐는 계모가 계자녀를 괴롭힌다는 잘못된 생각을 강화해서 계부모와 계자녀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성별에 따라 콩쥐팥쥐에서 연상하는 단어에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황소, 두꺼비, 선녀 등의 외적 원조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생은 장화홍련전에서 원혼이나 장화홍련을 연상하는 경우가 95명(38.0%)로 가장 많았으며, 계모를 연상하는 경우가 57명(22.8%), 연못이나 익사를 연상하는 경우가 41명(16.4%), 장쇠를 연상하는 경우가 12명(4.8%), 사또를 연상하는 경우가 11명(4.4%)으로 나타났다. 즉 계모와 관련된 연상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주인공 연상이 38.0%, 외적 원조가 4.4%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화홍련전은 계부모-계자녀의 적응에 장애가 되는 계모에 대한 편견을 형성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화홍련전에서 외적 원조에 대한 연상이 특히 낮게 나타난 것은 백설공주나 콩쥐팥쥐와는 달리 결국 주인공이 사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장화홍련전에서 연상하는 단어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3편의 전래동화는 재혼가족간 적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악한 계모에 대한 연상을 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성별에 따른 편견

편견, 고정관념 내용	성 별		계	X <sup>2</sup>
	남	여		
계모에 대한 편견	41(37.3)	51(48.1)	92(42.6)	
여성의 위상에 대한 편견	30(27.3)	20(18.9)	50(23.1)	
요행이나 외적 원조	20(18.2)	27(25.5)	47(21.8)	
흑백논리	19(17.3)	8( 7.5)	27(12.5)	
계	110	106	216	8.5*

\*p<.05

### 3. 편견 형성 여부

대학생들은 위의 3편의 동화가 아동에게 편견을 형성한다고 보는 경우가 193명(72.8%)으로, 편견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72명, 27.2%)보다 훨씬 많았다. 편견이나 선입관념 형성 여부에 대한 응답은 성별, 주성장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대학생들이 형성된다고 여기는 편견으로는 계모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는 경우가 90명(48.9%)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외에도 단순히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선입관념을 심어준다는 것을 26명(14.1%)이 지적하였고, 단순한 흑백논리를 심어 준다고 보는 경우가 20명(10.9%)이었다. 그외에도 신데렐라 컴플렉스와 같은 여성의 위상에 대한 고정관념(19명, 10.0%)이나, 주인공이 무조건 아름다워야 한다거나(13명, 7.1%), 소극적 자세가 선하다는 등의 편견(12명, 9.4%)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응답은 대학생이 3편의 동화에서 연상하는 것이 주로 계모, 외적 원조, 주인공인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상의 응답 내용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즉 편견 내용을 계모에 대한 것, 주인공의 위상이나 외모에 관한 것, 요행이나 외적 원조에 관한 것과 흑백논리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sup>3)</sup> 성별에 따른 편견 내용을 살핀 결과, 여학생은 이상의 동화를 통하여 계모에 대한 편견이나 요행, 외적 원조에 대한 고정 관념이 더 많이 형성된다고 보는 반면, 남학생은 흑백 논리의 부작용이나 여성의 위상에

대한 편견이 더 많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편견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에는 편견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른의 시각일 뿐 이라거나(10명, 19.2%), 어른이 된 후에는 영향력이 없다거나(7명, 13.5%), 아직 꿈을 가질 나이이므로 괜찮다는 의견이나 선악이 분명하므로 괜찮다거나, 교훈이 된다는 견해가 각각 6명씩 이었다.

이상에서 전체 응답자의 3/4정도는 3편의 동화가 편견을 형성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 계모에 대한 편견이 형성된다고 보는 경우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 4. 동화 선물 여부와 이유

대학생들은 위의 3편의 동화를 친지 아동에게 선물하겠다는 경우가 141명(53.2%)이었고, 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124명(46.3%)으로 선물하겠다는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선물하겠다는 이유로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41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교양 도서이기 때문이 25명(17.8%), 재미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21명(15.4%), 정서함양이 된다는 이유가 10명(7.4%)이었다. 반면 위의 3편의 동화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아서 28명(23.1%)이었고, 이미 알고 있어서라는 이유가 25명(20.7%), 계모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는 이유가 10명(8.3%)이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이 3편의 동화가 편견 형성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동화가 아동의 편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들이 3편의 동화가 아동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이

3) 해석 범주화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2인의 범주화가 일치하는 경우만을 제시하였다.



나 흥미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3편의 전래동화는 계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작될 필요성이 있다.

동화 구입 여부는 성별이나 주성장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응답자인 대학생이 교육수준이나 사고방식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남녀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아동기에 읽은 계모-계자녀 관계를 다룬 3편의 전래동화가 그들에게 어떤 편견을 형성하였다고 판단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동기에 백설공주라는 외국의 전래동화를 콩쥐팥쥐나 장화홍련전과 같은 우리의 전래동화보다 더 많이 읽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그러하였다.

둘째, 백설공주, 콩쥐팥쥐 그리고 장화홍련전의 내용은 계모-계자녀 간의 적응을 방해하는 부정적 계모상(stepmother image)을 주입 형성시킨다. 이러한 부정적 선입관념이나 편견 형성이, 재혼 가정의 증대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정과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의 대형 서점에서 이들 동서양의 전래동화가 꾸준히 팔리고 있어, 아동 교육상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 주인공과 계모에 대한 편견과 인지에 더욱 민감하였다.

네째, 이들 동화는 부정적인 계모상을 연상시키는 동화이다. 따라서 현대의 이혼 증가와 그에 따른 재혼가정의 증대에 따라 계부모-계자녀간의 적응 문제가 중요한 가정교육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계모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 줄 내용으로 개작하거나 창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들 동화가 편견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절반 정도의 대학생은 이들 동화를

친지 아동에게 권하거나 선물하려고 한다. 이것은 동화가 아동의 편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학생이 둔감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들이 3편의 동화가 아동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이나 흥미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아래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이 연구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서울의 3개 대학의 대학생을 유의 표집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동화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들이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한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회상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와 초기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강어수(1990). 동화에 나타난 어머니-자녀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 강인언·김영숙(1992). 유아문학교육 - 이론과 실제 -. 서울 : 양서원.
- 3) 김경중(1990). 동화가 지니는 심리학적 의미 : 갈등 및 갈등 해소에 따르는 아동의 반응.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김영희(1977). 한국 창작 동화의 팬터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문예사전편찬회(1962). 문예대사전. 서울 : 학원사.
- 6) 서봉연(1980). 한·독 아동도서에 관한 분석적 비교. 서봉연. 울리히 한 위음.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아동도서. 교육신서 84. 배영사신서. 서울 : 배영사.
- 7) 서울대학교 아동학연구실의 연구원들(1993). 토손자와 거북손녀. 서울 : 샘터.
- 8) 송영규(1992). 韓佛 古전동화의 비교연구. 서울 : 범우사.
- 9) 이동태(1980).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대한 아동의 반응. 한국일보 1980년 7월 30일자.

- 10) 이재철(1969). 아동문학개론. 서울 : 대운당.
- 11) \_\_\_\_\_ (1983). 아동문학개론. 서울 : 서문당.
- 12) 이홍식(1981). 한국 전래 동화의 분석 : 환상 세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정선희(1980). 한국 유년 동화 연구 : 한국 창작 유년 동화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최운식 · 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론. 서울 : 집문당.
- 15) 한국어사전편찬회편(1991). 대국어사전. 서울 : 금성출판사.
- 16) Bettelheim, B.(1977). *The uses of enchantment :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N.Y. : A. A. Knoff.
- 17) Burr, W.R., Day, R.D. & Bahr, K.(1993). *Family science*. C.A. : Brooks/Cole Publisher Company.
- 18) DeMause, L.(1974). The evolution of childhood. In L. DeMause(Ed.) *The History of Childhood*, N.Y. : Harper & Row.
- 19) Fetscher, I. 著. 이진우 譯.(1991). 누가 잠자는 공주를 깨웠는가?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20) Hetherington, M.E., Stanley-Hagan, M. & Anderson, E.R.(1989). Marital transition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21) MacFarlane, A.(1970). *The family life of Ralph Joselin-a seventeenth century clergyman*.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